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위대한 자의 위대한 고백

(시편 32:1-11)

누가 위대한 자입니까? 위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위대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더불어 간음죄를 짓고 다시 이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나가 전사하도록 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로 침상을 적었다고 했습니다(시 51편).

다윗은 먼저 시편 51편에서 큰 회개를 했고, 회개의 결과로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교훈으로 남긴 시가 시편 32편인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시편 32편의 제목이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이란 교훈 혹은 묵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32편은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쓴 시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다윗의 간증에 믿음을 통한 은혜로 의로워진다는 자신의 논지를 첨가하며 시편 32편을 두 번 인용합니다. 이 시는 또한 어거스틴이 매우 사랑한 시로서 그는 죽기 전 이 시를 더 깊이 느끼기 위해 자기 침대 옆에 벽에 써 붙여 놓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시를 좋아한 까닭은 “지식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 됨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불꽃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작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결국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진실로 복 있는 자입니다.**

운 짐을 그의 두 어깨에서 벗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로 떨어져 구르기 시작해서 그가 무덤의 입구에 왔을 때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죽기까지 감사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등이 서에서 멀 듯 죄를 우리에게서 옮기신다고 했고(시 103:12),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하신다고 하셨습니다(사 43:25).

### (2) 죄가 가려진 사람

두 번째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로 읽으며 표적에 빗나간 것 또는 미치지 못해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못한 것은 큰 죄가 됩니다.

세 번째 죄는 부정, 정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원’이라고 읽으며 부패한 것, 그릇된 것, 굵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대항한 것, 율법의 관계에서 율법에 미치지 못한 것, 자신과의 관계에서 바른 표준에서 빠뜨려진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즉 덮여준다는 것은 속죄의 날을 연상케 합니다. 속죄의 날에 이스라엘의 대 제사장은 성전 뜰에서 희생 제물로 짐승을 잡아 피를 취하여 시은소에 뿌렸습니다. 시은소는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입니다. 시은소는 깨진 율법, 곧 하나님이 심판으로부터 죄인을 감싸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시은소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이키는 행동인 달란다. 화해 한다는 뜻이 있으나 히브리어는 덮는다, 가려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은소가 죄를 가려주고 덮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불꽃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작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결국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진실로 복 있는 자입니다.

### (3)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내리시는 그 징벌을 받지 않는 자는 복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죄인에게 죄를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죄를 계산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32:1을 인용하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을 복이 있도다”(롬 4:7-8)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교훈(마스길)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아직도 복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용서가 있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죄가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사람, 모든 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기쁨 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1. 참으로 복있는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죄는 복이 있도다”(1절).

시편 1편에서 복있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의 복과 여기서의 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 나온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32편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회복의 기쁨을 알게 하는 복을 말합니다. 시편 32편은 히브리시의 대구법의 모델로서 죄를 3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시기를 설명합니다.

시인이 서두에서 강조한 것은 자기의 내면적 불안이나 육체적 고통의 원인은 바로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원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1)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

죄의 깊이를 알고 있는 다윗은 죄를 먼저 허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1절).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읽으며 거역하는 것, 실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권위에 대한 항거와 같이 의적으로 나타난 죄를 의미하는 허물은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시 51:4). 다윗은 분명히 뱃세바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비추어 볼 때 다른 죄들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을 가장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죄가 날라 간다고 합니다. 존 번연은 천로역정에서 십자가로 가는 기독교인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의 무거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을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새벽을 깨우며 흥해를 건너

교회를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가 지축을 흔들고 차량의 전조등이 새벽 미명의 캄캄한 대치동을 밝히고 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새벽 5시를 기해 개전된 2006 흥해작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도들의 물결 속에 오늘로 6일째 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신약성경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본문으로, 이종운 목사가 매일 새벽 '교회, 백성의 위로자'란 대 제목 하에 은혜 충만한 강해설교를 이어가고 있으며 성도들은 7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거운 기도를 하고 있다.

흥해작전 본부는 본당에 주력부대석을 마련하여

매일 순서에 따라 주력부대로 정해진 교구 가족들이 한 자리에 앉아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참여의 열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흥해작전 4행시'를 공모하고 있다. 흥해작전 4행시는 매 행의 첫머리에 흥해작전 네 글자로 시작되는 시를 써 본당 앞에 비치된 함에 넣으면 6월25일 흥해작전 승전 기념주일에 시상을 하게 된다.

또한 흥해작전 기도요청 카드를 배부해 개인적으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기도제목들을 모아 교역자들이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7개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중직자들이 매일 흥해작전 후 본당에서 한 자리에 모여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 요덕스토리 공연

6월19일(월) 목회자 구국기도회에서

6월19일(월) 오후 1시 우리교회당에서 북한주민의 구원을 위한 목회자 구국기도회가 열린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전국의 3000여명의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김정일의 폭정 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북한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자리로 마련되어 눈물과 회개의 기도가 이어지게 된다.

저녁 7시부터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 출신 감독

이 기획, 제작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요덕 스토리'가 공연되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북한의 실태와 특히 수용소의 참혹함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한다.

요덕 스토리의 공연은 우리교회 성도와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관람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는 성도와 이웃들의 많은 관람을 바란다.

## 세계 선교와 나라 위한 기도회

6월20일(화) 오후6시30분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세계선교를 표어로 걸고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나라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리는 CBS 시청자 대회가 6월20일(화) 오후 6시 30분 올림픽공원내 펜싱경기장에서 열린다. 세계선교와 나라 위한 기도회로 열리는 CBS 시청자 대회는 성도들과 교계 지도자, CBS 임직원, 전국 각지의 시청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개인적 신앙의 결단과 함께 침체된 한국교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거듭나기를 바라는 기도가 이어질 이번 시청자 대회에서 우리교회 이종운 목사가

주강사로 서게 된다.

CBS에서 실황 중계로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만주와 중국의 산둥반도 일부, 일본의 서부지역까지 위성을 통해 방영될 이번 시청자 대회에 특별히 우리교회 연합찬양대가 아멘관현악단, 그레이스 핸드벨 과 이어와 함께 나서며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올림픽공원내 펜싱경기장은 5호선 올림픽 공원역 3번 출구에서 15분 거리에 있다.(약도 참조)



## 흥해작전 중 교회학교 특별행사 가져

흥해작전 중 교회학교에서는 특별행사를 준비하여 잃은 영혼을 찾는데 앞장서게 된다. 교회학교 학생들의 발걸음을 통해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교회학교별 특별행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부서	행사 계획
유아부	잃은 양 찾기, 총동원 주일
유년부	잃은 양 찾기, 총동원 주일, 태신자 작성, 짝꿍 전도
초등부	태신자 작성, 짝지 전도
중등부	태신자 작성, 성경퀴즈대회(18일), 짝꿍전도의 날(25일), 중등부 총동원의 날(6.10.17.24.25)
고등부	교사기도회, 잃은 양 찾기
대학부	개전 총동원의 날 QT 모임
청년부	개전기념 모닝파티, 전도대상자 2명 작성, 전도대상자를 위한 특심기도(매주 토요일)
새가족부	교사기도회 6/16(금)

## 미래한국신문 구독 장려

교회는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때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시국을 보고 해설하는 미래한국신문(발행인:김삼철 장로) 구독을 성도들에게 장려하여 성도들이 바른 국가관으로 애국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로 하였다. 미래한국신문은 주간지로 1년 구독료는 5만 원이다.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 다락방 증설돼

교구의 부흥과 성장으로 다락방이 다음과 같이 증설된다.

다락방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1-23	심명숙	조순엽
1-47	박신자	김삼순
3-10		최정순
3-21	박이선	박정순
3-22	우지원	한인진
3-23	박영실	이봉규
4-5	윤복순	
4-12	최종희	박민숙
5-12	김정희	
11-4	송희숙	이양숙
12-1	송성식	신봉하

## 금주의 성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14:17)

the Spirit of truth. The world cannot accept him,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But you know him, for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John 14: 17 [NIV])



제14차 김치신학세미나

# Our Challenge for 21st Century

'Our Challenge for 21st Century'를 제목으로 지난 5일에 개최된 제14차 KIMCHI 신학세미나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초청된 동아시아의 교역자들은 출입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몇 분의 교역자들은 끝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무사히 입국한 24명의 교역자들은 입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라도 더 배워 자국 복음화의 초석이 되고자 이른 새벽시간부터 늦

은 밤까지 계속되는 강의와 기도, 토론으로 조밀하게 짜인 계획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 계속되는 종교 탄압에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은 뿌리를 내려온 동아시아의 교회를 통해 동아시아가 복음화 되는 그 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음을 감사하며 이들이 복음의 확신을 갖고 성령 충만하여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 유태서(편집부)



2006 흥해작전

## 교회, 백성의 위로자

2006년 6월 6일, 드디어 흥해작전이 시작되었다. 이른 새벽 5시, 원근각처에서 출발한 성도들이 속속 도착하고 교회 주변 일대는 정연하고 조용하게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에도 활기에 넘쳤다.

흥해를 건너지 않으면 애굽으로 잡혀가야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비장하고 결연한 모습이 서로 돕고 깨우며 기도하는 가운데 구한 것을 이미 주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흥해를 건너는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흥해가 갈라진 역사적인 사건과도 같이 흥해작전은 말씀작전이요 기도작전임을 강조한 이종운 목사님은 "교회, 백성의 위로자"의 주제 아래 올해도 7대 기도제목과 놓고 온 성도들과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 교회와 이웃, 개인을 위해 기도하며 흥해작전을 진두지휘했다. 신약성서 중 사도 바울에 의해 제일 처음 기록되었으며 가장 오래된 책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교회와 복음의 의미와 성도의 지킬 본분에 대하여 날마다 새로운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새벽을 깨우는 이번 흥해작전에는 특별히 동아시아에서 서울교회를 찾은 김치세미나의 동아시아 교역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종운 목사님은 무서운 핍박으로 지하로 숨어들어

간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70년대를 회고하시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손수 연필로 옮겨 적어 두꺼운 다발이 된 성경을 읽고 있던 그들의 모습을 신약 시대의 신생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연결시키며, 오늘날 교회는 오로지 복음이 낳은 교회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공동체이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살아 숨 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임을 힘있게 선포하셨다.

주기도문을 끝으로 예배당의 불이 꺼진 후에도 많은 성도들이 자리에 남아 간절히 기도하였고, 출근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위해 8층 만나홀에서는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여 식탁을 공유하는 식구 됨의 기쁜 시간을 갖기도 했다.

흥해를 건너다가 멈추는 것은 중도에 물에 빠지고 마는 것과 같다. 우리의 죄의 노예된 것들을 애굽 땅에 모조리 내려놓고 약속된 가나안으로 향해 열린 저 깊은 심해 바닥을 묵묵히 함께 걸으며 복음의 묵상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침내 흥해를 완주하고 애굽과 절연되며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땅을 행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나소정(편집부)



9대집사 · 8대권사 피택자들에게

##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있는지...

이용선 장로(2교구, 원로장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2-6)

2006년도 안수집사, 권사님으로 택함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오며 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매 순간마다 기도로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오셨기에 오늘날 이렇게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님께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여

- 육에 속한 옛 사람이 날마다 죽고 있는지를 매 순간 세심하게 살피며
- 자신의 뜻을 내세워 주님의 뜻을 가리우는 일이 없이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며 목사님과 당회의 결정에 순종하며 섬기고
-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신령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세상의 직분처럼 사람들의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까지보다 자신을 더 많이 낮추어서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실천하시어 성도들의 귀감이 되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와 간구로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시어 서울교회가 더욱 더 굳건히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서울 교회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과 사역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일들 위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군선교 위문공연을 다녀와서...

#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이혜경 선생 (그레이스 핸드벨콰이어 지휘자)

6월 6일 현충일,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는 경기도 포천시, 휴전선 근방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706특공연대, 132공병대대의 병사들을 위문하기 위한 연주를 가졌습니다. 250명의 인원 밖에 수용할 수 없는 부대교회는 위문공연을 보기 위해 밀려오는 병사들로 인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위문으로, 저들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쉼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훈련 속에서 병사들은 꼭 쉴 수 있는 휴일을 기다리는데 유일하게 꼭 쉴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날, 자원해서 교회로 와 준 그들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비전2020의 지도목사이신 한상은 목사님께서 첫 인사말씀을 하시고 위원장이신 진문장로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레이스 핸드벨 위문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단원들은 1부 핸드벨연주와 2부 찬양위십으로 1시간의 위문공연을 잘 해냈습니다. 한상은 목사님의 축도로 비전2020과 함께 하

는 그레이스 핸드벨콰이어의 위문공연은 은혜중에 잘 마치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병사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병사가 나를 향해 "위문품 받은 것 중에 최고입니다!!" 라고 말을 하여 우리의 마음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핸드벨콰이어 단원들도 군선교 위문공연을 치른 뒤에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들이 헌신하며 섬기는 서울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우는지, 그리고 시원한 예배당에서 매 주일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절실히(!) 느낀 귀하고 복된 하루였습니다. 준비할때는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위문공연을 마치고 나니 힘이 나고 피곤한 줄 모르겠다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역시 지휘자로서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휴일도 마다하고 함께 동행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비전2020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그리고 조국의 군선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팀의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분투할 것입니다.

## 강남노회 교회학교 어린이대회 그리기 부문 입상작



◀ 금상: 이주영 (유년부)



▶ 금상: 정채의 (유년부)



◀ 은상: 김지수 (유년부)

만민에게 전도-1일농존전도

## 오치교회를 다녀와서

오치열 집사(바울선교회 회장)

지난 화요일 현충일을 기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뻐했던 농존전도를 안동의 오치교회로 다녀왔습니다.

31명의 선교회원들은 오치교회에 도착하여 현지 교회의 따뜻한 환영 속에 한 번도 교회에 와 본적이 없는 주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예배도 드리고 점심 식사도 함께 나누며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우리는 마을 회관으로 이동하여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와의 의료 봉사를 하며 한편으로 이미용 봉사와 의료 봉사를 받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오치교



회가 위치한 곳은 여느 농촌과 다름없이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곳으로 전 주민이 약 1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인데 이 날 주민의 6~70%에 해당하는 60여명의 주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방치료를 받은 분이 29명, 이미용 봉사를 통해 머리를 가다듬은 분이 29명으로 대단한 호응 속에 농존전도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 많은 주민이 심령에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25장의 노트에 정리하여 오치교회 강석환 전도사님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날 우리가 받은 은혜 중 가장 큰 수확은 점과 무당의 잡술에 깊이 빠져있던 마을 반장님이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다짐을 교회에서 인사를 겸하여 약속한 것입니다.

또한 깊이 불교를 믿던 불교신자인 부녀회장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식사를 도우며 이미용도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앞으로 계속 전도하면 회개하고 주님 앞을 돌아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길 믿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5일(목) 강로교신학회 릴레모임을 소집하고, 군선교신학회 논문발표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16일(금)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동문임원회를 소집한다.
- 수상: 12교구 최지옥 성도 세계바리스타대회(WORLD LATTE ART CHAMPIONSHIP) 2위 수상
- 이사: 1교구 장양일 집사, 정정숙권사 강남구 대치동 932-33 T. 558-6133  
4교구 박희서 집사, 김미자집사 삼성동 17번지 롯데아파트 103동  
11교구 정진문 집사, 경유경 집사 송파구 잠실본동 현대아파트 T. 413-6314
- 특남: 9교구 오선혜 성도(오경수 장모, 이영희 권사의 딸) 정철웅 성도 가정
- 주간식당 봉사: 도르가전도회(6월11일) 루디아전도회(6월18일)
- 금주의 식사제공: 김민주 김성연 성도가정(결혼을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흥해작전 · 김치 신학세미나 위하여
2. 피택집사 · 권사 교육과정에 은혜 증만토록
3. 북한주민 구원을 위한 세계기도일(6월25일) 선포와 6월19일 북회자대성회, 20일 세계선교 · 나라위한 기도회 위하여
4. 호산나 복지법인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집터를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